

■ 연구원 소식

○ 4차 역사문학기행 안내(12월 28일)

일 시 : 2019년 12월 28일(토) 09시~16시

장 소 : 순창군 쌍치면 피노리(전봉준 피체지)

내 용 : 서울로 가는 전봉준과 만나는 순창 피노리

대 상 : 회원 및 시민 30명

참가비 : 20세 이상 1만원

2019년 4차 역사문학기행이 오는 12월 28일(토)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시인 안도현의 작품 "서울로 가는 전봉준"과 만나기 위해 나서는 길입니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은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으로 서정적이며 서사적인 느낌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조화를 이루고 굴곡진 우리 역사를 詩化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1894년 12월 2일 순창군 피노리에서 체포당한 후 12월 9일 서울로 압송당한 전봉준 장군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길입니다. 근처에 자리한 회문산과 가인 김병로 생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여 참가 신청 미처 못하신 분 살며시 연락주시면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 4차 역사문학기행 세부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09:00~10:00	전주대학교 -> 가인 김병로 생가 이동	순창군 복흥면 하리 519
10:30~11:00	전봉준 장군 피체지 이동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276
12:00~13:30	점심식사	
13:30~16:00	회문산 역사관 이동 및 관람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산 3-1
16:00~17:00	전주대학교 이동	

이스라엘 베들레헴 예수 탄생 현장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예수가 탄생하였다는 지점을 별 모양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곳은 예수탄생기념교회 지하에 있다.

예수는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가 세상에 온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깊은 Turning Point이다. 왜냐면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BC라 함은 "Before Christ"라는 뜻으로, 누구나 알고 있다.

때가 때인 만큼 예수 탄생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베들레헴 읍내와 인접한 들판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 들판은 건조하고 거친 곳이다. 이 열악한 곳에서 살아가는 목동들의 삶은 험난하였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고 추위가 엄습하자 목동들은 모닥불을 피워 놓고 기나긴 겨울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목동들에게 말해주었다.

'지금 읍내 어느 집 마구간에서 아기에수가 방금 태어났다. 이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니 어서 가보라'고 하였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천사가 중요한 뉴스를 힘없고 가난한 목동들에게 먼저 알려 주었다는 것도 새겨보아야 할 의미이다. 아무튼 예수는 애초부터 낮은 자세로 왔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 살았다.

베들레헴에 가려면 예루살렘 다마스쿠스 성문 근처에 있는 종합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된다.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의 거리가 불과 10km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금방 도착한다. 베들레헴 버스정류장에 내리면 성탄교회가 바로 보인다.



베들레헴 상점거리

예수 탄생 교회는 베들레헴 읍내 중앙에 있다. 베들레헴과 인근 헤브론은 아직도 정치적 긴장이 감돌고 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불시에 출입이 통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순례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수가 탄생한 말구유는 이 교회 아래층에 있다. 예수의 탄생지인 때문에 이곳 베들레헴은 기독교 유적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예수 탄생 시점부터 기독교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서기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그의 어머니가 베들레헴을 방문하여 예수탄생교회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때가 서기 339년이었고 이 후로 예수성탄교회는 별탈이 없이 잘 보존되었다. 그러다가 서기 638년에 아랍인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였을 때 성탄교회가 위기에 처할 뻔하였다.

이들이 교회에 불 지르려고 안으로 몰려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교회 안에 들어선 이들이 벽면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모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벽면에 그려진 동방박사의 그림을 본 것인데, 동방박사의 복장이 자기 나라의 것이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아랍인이었다.

이로 인해 아랍인들은 불을 지르려는 커녕 오히려 예수탄생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인들과 아랍인들이 공존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곳에 가면 종파를 떠나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분위기를 보게 된다. 더욱이 필자는 어린 시절 부터 예수탄생을 상상하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던 그 때를 회상하며 베들레헴의 별을 손으로 쓰다듬게 되었는데,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묘한 감동이 나를 지배하였다. 그때 느꼈던 감동의 깊이만큼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다.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는 것과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진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사람 키보다 작다.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라는 뜻이다.

사진은 두 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건물이다. 예수의 겸손, 낮은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작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장의 사진으로 이를 표현하였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면 역시 또 하나의 작은 입구가 있다.

이곳에 줄지어 기다리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베들레헴의 별이라 불리는 14 꼭지의 은으로 된 별이 예수 탄생 장소를 기념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감격하여 엎드려 진다.



종파에 관계없이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입구에서 줄을 선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고려와 조선을 연 성수산 상이암, 세 번째 이야기 “환희담과 고려 태조 왕건”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환희담 표지석 | 얼마나 기뻐하면 환희담이란 이름을 짓고 표지를 남겼을까? 이제는 오랜 역사의 뒤안길을 더듬는 이정표가 되었다.

전설의 환희담을 가리키던 표지석 또한 경내에서 발견된다. 암자로 드는 계단을 조성하면서, 어필각 바로 아래쪽의 계곡 옆에서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칠성각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가 현재의 자리이니, 그 옆에 장작이 쌓였다. 큰비가 내리면 유실될까 두려워서 베푼 처사인데, 이제 표지석은 자신의 자리를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한귀퉁이에 남았다.

표지석은 1m가량 되는 자연석으로 넓적한 돌을 머리에 이고 있다. 바위 표면에는 지금도 두 줄로 쓰인 글씨들이 흐릿하게 읽혀진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왕태조필王太祖筆'이라고 새겨졌다. 한가운데에 '환희담歡喜潭'이라고 쓴 세 글자가 널찍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왕태조필'은 후인의 솜씨임이 분명하겠지만, '환희담'이란 암전한 세 글자가 참으로 왕건의 필적이 맞는가? 사실이라면, 이제는 보기 힘든 왕건의 필체를 덤으로 구경하는 셈이다. 왕건과 환희담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물론 도선국사도 등장한다.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를 살다 간 풍수도참의 대가 도선스님이 성수산에 들른 적이 있다. 도선스님은 범상치 않은 산세를 두루 살피고 난 뒤,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이곳이야말로 하늘이 응하고 땅이 도와주는 자리로구나.” 그리고 자세하게 덧붙였다.

“천자가 조회를 받드는 형상으로, 코끼리 봉우리가 따로 서서 차차 모습을 드러내니, 이 산이 흥하면 나라가 흥할 것이오, 이 산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天子奉朝之像象峰別立次次出現此山興則邦家興此山亡則邦家亡]”

도선스님은 장차 이곳에서 여덟 성인이 나오리라 예언한 다음, 이 산을 팔공산八公山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즉시 송도松都로 올라가 초야에 묻혀 있던 왕건에게 성수산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아울러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올리면 대망을 성취할 것이라고 이르며, 이행을 권하였다.

왕건은 도선스님과 더불어 이곳에서 백 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올렸지만 특별한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다. 재차 마음을 다잡은 왕건은 골짜기로 내려가 바위틈에 흐르는 맑은 물로 목욕재계를 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3일을 다시 기도하자, 마침내 한 나라의 주인이 되리라는 관음보살의 계시가 나타났다. 왕건은 기쁨을 가눌 길 없어, 자신이 목욕재계를 했던 계곡 옆의 바위 위에 즉시 '환희담'이라고 일필휘지하였다. 도선스님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주변에다 암자를 짓고 도선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전설은 중국 당나라의 문헌인「당일선사기唐一禪師記」에도 실렸다고 전한다. 다른 이야기에는 백일기도를 마치던 날에 하얀빛을 뿜는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상제만세'란 소리가 세 번이나 울렸다고 한다.

어필각 아래쪽의 환희담은 본래 모습을 펴이나 상실했다고 여겨진다. 긴 세월을 거치면서 지형이 변한 탓도 있겠지만, 계단 공사의 여파가 가장 큰 듯싶다. 환희담은 건조한 봄날에도 물기가 흥건하고, 특히 비가 많은 여름날에는 제법 그득하게 물이 고이는 자리다.

고려 개국의 위대한 전설이 깃든 곳이니 만큼, 이제라도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를 해 둔다면 보기에 훨씬 좋으리라. 물론 환희담이라고 쓴 천연석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돌이켜 보면, 왕건과 도선국사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제왕과국사'로 우리 역사에 남은 인물들이다. 도선국사는 왕건의 탄생부터 간여하고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일에는 새롭게 건국한 고려를 위해 태조 왕건에게 여러 가지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왕건의 탄생과 관련한 전설을 본다.

언젠가 도선국사가 백두산에 올랐다가 남으로 내려가며 개성을 지날 때였다. 왕건의 아버지 왕릉王隆이 새로 집을 짓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건넸다.

“느릅나무를 심을 땅에 왜 삼베를 심으셨소이까?”

이 말을 심상치 않게 들은 왕릉은 도선을 극진히 대접하며 자문을 구하였다. 이에 도선은 뒷산에 올라가 산수의 맥을 살펴보았다. 위로는 천문天文을 보고 아래로는 시수時數를 살핀 다음 말했다.

“송악산의 맥은 멀리 임방壬方에 있는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수모목간水母木幹으로 뻗어 내려와 마두馬頭에 떨어져 명당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대는 수명水命이니 물의 대수大數에 따라 집을 육육六六삼십육구三十W六區로 짓고, 송악산이 험한 바위로 되어 있으니 소나무를 심어 암석이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천지의 대수가 부응하여 명년에는 반드시 신성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왕건王建이라고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선의 말처럼 과연 1년 후에 고려의 창업주가 될 왕건이 태어났다.

고려를 세운 뒤, 왕건은 도선국사를 개인적인 스승으로 삼았다. 나아가 국사의 자리에 책봉하였다. 그리고 고려 시대 내내 국사國師제도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왕건이 도선의 사상에 얼마나 심취하고 영향을 받았는가는 그가 남겼다고 전하는 「훈요십조訓要十W條」를 통해 미루어진다. 「훈요십조」의 내용은 불교와 토속신앙, 풍수지리, 음양오행, 도참설 등에 대한 태조의 깊은 믿음을 그대로 보여 준다. 모두 10개 조로 되어 있는데, 도선국사의 영향으로 미루어지는 다섯 조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제1조 나라의 대업大業은 반드시 부처의 힘을 입어야 한다. 선종과 교종의 사원寺院을 창건하고 주지를 보내 각각 다스리도록 하되, 각 사원을 서로 다투어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2조 사원을 함부로 세우면 나라의 운수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도선국사가 말했다. 스님이 산수山水의 형세를 살피고 세운 사원외에는 마음대로 창건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5조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터전이다. 철마다 서경에 가 머무르기를 100일이 넘도록 해서, 그곳의 안녕을 이루도록 한다.

제6조 내가 지극히 원하는 것은 연등燃燈과 팔관八關이다. 연등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천령天靈과 오악五岳·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에 더하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한다.

제8조 차령車嶺이남과 금강錦江밖은 지형이 모두 거꾸로 달리고 있으니, 그곳의 인심도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그쪽 사람들을 등용시켜 권세를 쥐게 하면 혹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쪽 사람들의 등용을 금한다.

고려가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 도선은 이후 현종 때에 대선사大禪師로, 숙종 때에는 왕사王師로 기러졌다. 인종은 선각국사先覺國師로 추증하였다.

그렇다면 왕건이 기도를 올린 자리는 과연 어디였을까? 바로 여의주봉이라고 미루어진다. 여의주봉을 빼 놓는다면 상이암 주변에는 기도를 올릴 만한 자리가 쉽게 눈에 띄이질 않는다. 아니, 여의주봉만큼 기세 넘치는 자리는 인근에 없다.

다음 주는고려와 조선을 연 <성수산 상이암> 네 번째 이야기 “이성계의 어필각과 여의주봉”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